

AUTHOR 정성구 (Sung Kuh Chung)

TITLE 칼빈주의와 사회
(Calvinism and Society)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62 no.1 (Spring, 1995):83-107

그후에도 프린스톤에는 때때로 보수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한 프린스톤에서 보수의 목소리는 예전에 「유일한」 역사적 개혁신학, 정통칼빈주의 신학이 아닌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리는 그 중에 한 「소수」의 목소리로만 남게 된 것이다. (*)

칼빈주의와 사회

鄭 聖 久

<실천신학>

목 차

I. 서 론

1. 사회에 대한 칼빈주의의 대전제
2. 사회에 대한 이해와 문제제기
3. 사회 참여에 대한 개혁교회의 입장

4. 사회 개혁을 위한 칼빈주의의 입장과 대안
5. 사회 개혁에 대한 칼빈주의의 대안과 결론

I. 서 설

과거에 복음적이고 부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들의 독무대가 되도록 방치해 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는 이른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하는 사람들 까지도 이론적으로는 삶의 전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이원론(Dualism)적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약점이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들의 이런 약점을 조소하면서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들이라고 매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한국교회 뿐 아니고 서양의 기독교도 거의 같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교회안에서도 개인구원이나 사회구원이라는 진부한 논쟁을 넘어서 크리스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후에 다시 언급하게 되겠지만 사실 사회개혁과 변혁의 책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성경을 신학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 칼빈주의자들의 몫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의 신학과 신앙의 논쟁에 휘말려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음주의라는 극단으로 가버리고, 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로 매도된 채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생각들은 끝없는 평행선을 그으면서 만남이 없었다.

그런데 점차 이 두 그룹 사이에 서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른바 개혁주의자들은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있었고 자유주의자들도 어느 정도 복음주의자들로부터의 자극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여간에 최근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신학 서적들이 사회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본다.¹⁾ 이런 서적들이 대개는 1990년대를 전후한 최근의 작품들임을 감안할 때 한국교회 110년 역사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원화 된 것이 사실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인도에서 홀로 살 수 없고 토굴에서 기도하면서 살 수는 없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1) 그 실례로서 李保民, 基督教社會論理學(개혁주의 신행협회 (1989), Christoph Jungen, Calvin and The Origin political Resistance Theory in the Calvinist Tradition,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김형익, 이은미 공역(실로암, 1989), John Stott,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역(CLC, 1985), 정훈택의, 현대사회와 기독교(생명의 말씀사, 1994), 김진홍의, 기독교는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대장간, 1994), 통합연구학회, 현대사회와 기독교 대학(통합연구학회, 1994), 이삼열, 基督的와 社會理念(한국신학 연구소, 1986), D.J. 케네디와 T.M. 무어, 사회개혁과 기독교인의 사명(예찬사, 1990), 이종성의, 현대사회와 신학의 대화(쿰란출판사, 1992), 로버트 웨버, 기독교와 사회운동, 박송용역(라브리, 1990), 양창삼, 사회변동과 기독교 정신(성광문화사 1982) 손규태, 사회윤리학의 탐구(KCLS, 1992), 이병각, 사회변혁적 설교(새한 기쁨출판부, 1991), 양낙홍, 개혁주의 사회윤리와 한국장로교회(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세계관의 문제이지만, 칼빈주의자들은 성경 대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세상에 속한자는 아니라는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든 죽든간에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세상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책임과 소명을 망각할 수 없고, 세상에서 도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과거 망각의 늪지대에서 방치해 두었던 우리들의 역할을 다시 찾아, 인간의 타락한 영혼은 예수의 피뎀은 복음으로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까지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세계는 우리들만 유아독존격으로 살 수 없고, 정보화 사회 또는 기술 사회로 나가면서 세계는 지구촌화 되어가고 있고, 그러므로 저편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었고, 그것의 영향은 사회전반에 걸쳐서 두루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사회는 세속화로 치닫고 인본주의와 유물주의적인 세계관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노아방주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주역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정황을 살피면서 칼빈주의적 시각에서 사회를 분석 평가하면서도 오늘의 한국교회와 사회에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사회에 대한 칼빈주의의 대전제

칼빈주의와 사회를 논함에 있어서 먼저 확실하게 해둘 것은 먼저 칼빈주의적 시각을 통해서 본 대전제가 필요하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전제가 없이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어떤 세계관의 입장에서 사회와 세상과 우주를 보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칼빈주의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에서 찾아야 한다. 즉 이 세상은 우연히 와서 우연히 사라지거나, 모든 것이 스스로 생성한 것이 아니라 또 작은 아메바에서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론적 세계관을 일축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은 창조하셨다는 대전제이다. 이런 하

나님의 창조의 빛 가운데서 이 세상의 문제를 살피면서 하나님 중심 사상 또는 하나님 사상으로 세상을 보기 전에는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전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오늘날의 일반학문의 원리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세속신학자들의 전제는 모두가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서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이며 어둠이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운동은 모두가 다 거짓된 운동이다. 또 그러한 전제위에 세워진 모든 학설들은 결국 오늘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답이 될 수 없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기에 자기 부정을 통해서 긍정에 이르지만,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긍정을 통해서 긍정에 이르려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 사회를 병들게 했고 자연을 병들게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병리 현상도 따지고 보면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서 나온 것이다. 또 요즘 말하는 환경 오염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인간오염에 연유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문제를 말할 때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다. 인간은 죄로 어두워서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서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것은 삶의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변화가 먼저냐 개인의 변화가 먼저냐 할 때 그 순서는 먼저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전제한 만큼 위에서 지적한 창조, 타락, 구속의 시각에서 사회의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칼빈주의 시각에서 사회를 논할 때도 다른 전제는 이른바 영역주권(Souveriniteit in eigen Kring)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²⁾ 즉 하나님의 주권은

2) 영역주권의 이론은 독일의 Stahl에서 시작해서 Groen Van Prinsterer, A. Kuyper, H. Dooyeweerd 등 이론을 정립했다. J.D. Dengerink, Critisch-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삶의 전영역에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가 1880년에 영역주권을 천명했을 때, 그는 국가, 교회, 학교, 가정과 같은 사회적 영역들은 그것 자신의 정체성(Identity)과 주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카이퍼는 선언하기를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사회내의 각각의 영역에게 제각기의 법을 주었으며, 각각 영역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제각기의 법에 의하여 존속되도록 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각 영역 주권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따라서 각각 영역은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성격과 특징적인 자체내의 법체계에 따라서 그들의 권위를 행사하도록 그 영역들을 부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의 대전제로서 하나님의 영역주권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며,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며,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이퍼가 말한대로 “만약 영역주권이 없다면, 국가는 무한한 권력을 갖게 되며 따라서 국민의 생활 방식, 그들의 권리, 그들의 양심, 심지어 그들의 신앙까지도 국가가 결정한다.”고 하였다.³⁾ 요한 칼빈(John Calvin)은 영역주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기를 “치안판사와 공공정책없이 시(市)나 마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 어떤 영적 정부가 필요하며 존재한다”고 하였다.⁴⁾ 이 말의 의미로 골 2:10의 말씀처럼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사도바울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를 칼빈주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연구한다고 함에 첫

historisch onderzaak naar het beginndd der “Souveriniteit in eigen Kring” (Kampen, 1948) J. O. Dengerink은 영역주권의 시각에서 “A Christian Concept of Human Society” “Power of Reformation in political life” “Christian and modern Democracy” “The Necessity of Christian Universities” “The christian in modern Society” 등의 논문을 써서 칼빈주의자들의 사회적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A. Kuyper가 1880년 Vrije Universiteit의 총장 취임식에서 “영역주권”을 제창한 후 이 말은 칼빈주의의 사상의 중심주제가 되었다.

3) A. Kuyper,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1880). p. 47.

4) John Calvin, Institute, IV 1.1.1.

제, 하나님의 창조, 들제, 인간의 전적타락,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넷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전영역에 작용하며, 각각은 고유한 영역을 가지며 하나님의 주권이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2. 사회에 대한 이해와 문제제기

성경에는 사회란 단어가 없고, 한국에도 옛날에는 사회란 말이 없었다.⁵⁾ 물론 헬라도 사회란 말이 없었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하였지만 실상은 정치적인 동물(Zoön Politikon)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인 공동체적 존재(Gemeenschapswezen)로 인식되었고 사회학(Wetenschap der Sociologie)는 우리시대에 와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공동체적 양상(gemeenschapsaspect van het mensenleven)의 학문으로 이해되어졌다.⁶⁾ 또 라틴어에도 사회 Societas 단어가 있었으나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았다.⁷⁾ 17세기에 와서 오늘날과 비슷한 의미로 사회가 쓰여졌고 그나마로 국가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쓰일 정도였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어서 도대체가 사회란 말이 안붙는 곳이 없을 정도로 폭넓게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⁸⁾

그런데 사회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

5) 손봉호, '크리스찬의 사회관', 김명혁편 현대와 크리스찬의 삶, (성광문화사, 1988), p. 7.

6) G. Brillenlung Wurzh, Het Christelijke Leven in De Maatschappij(Kampen : kok, 1956). p. 16. 특히 화란에서의 사회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는데, P. J. Bouman, Algemeene maatschappijleer(1948), Banning, Theologie an Sociologie(1936), Banning, Over de Cntmoeting van Theologie en Sociologie (1946)으로서 신학과 사회학의 만남과 대화를 시도했다.

7) 손봉호 op. cit. p. 8.

8) 에컨대 사회과학, 사회대학, 사회윤리, 사회심리학, 종교사회학 지식사회학, 지역사회학, 목회사회학, 보건사회부, 사회참여, 교회와사회, 사회정의, 사회봉사, 정보화사회, 미래사회, 기술사회, 사회주의 등등 요즈음 사회란 말이 붙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나누어진 이유중에는 물론 신학과 성경해석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나 보다는 실제적인 영향을 준 것은 역시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보수주의 또는 복음주의 쪽에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인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교회와 세상을 대결구도로 보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서 자유주의는 성경보다 오히려 사회의 실제(praxis)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사회적 상황(context)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양극화 현상이 결국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성경에 사회란 말이 없지만 여기에 걸맞는 말은 역시 세상, 세계·세대란 말이다.⁹⁾ 즉 흔히 세상에 물들지 아니했다든지, 세상물정을 모른다는 말은 사회에 물들지 아니했다는 의미로 통용되어도 좋으리라고 본다.

본래 사회란 말의 뜻은 자체의 법칙들이나 목표를 가진, 어떤 제한된 기능으로서의 조직에 대한 말인데 문화의 부분들이나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미 위에서 말한바 있지만 사회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신학과 신앙의 갈림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해방신학자들이나 민중신학자들이 신맑스주의(New Marxism)의 사회이론을 많이 채용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해방신학의 윤리가 사회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과 결합된 사회주의 경제학의 논리적 귀결이다.¹⁰⁾ 한편 보수주의자들은 극단적인 내면지향적인 신앙의 형태를 띠고, 세상 곧 사회와 담을 쌓고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오로지 개인의 영적 충족성을 만족 시키는 것으로 크리스찬의 사명을 다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보수, 진보 모두가 사회문제에

9) 여기에 대해서 필자의 다른 글 "칼빈주의와 세상"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성경에는 세상이란 말도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아이온)이나 (코스모스)같이 세상이란 말은 이방인을 말할 때 인간의 죄성을 말할 때 또는 우주를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외를 지칭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 새로워진 세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10) 로버트 웨버, 기독교 사회운동, 박승룡 옮김(경제정의실천 기독교청년회 생협의회, Labri, 1990) p. 92. 좀더 구체적인것은 David M. Paton, Breaking Barriers : Nairobi 1975(Grand Rapids, Eerdmans, 1976)을 참고할 것.

대한 자기 반성을 내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칼빈주의적 시각에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사회참여를 하며, 어떻게 사회를 개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사회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광범위하다. 그 어느것도 크리스찬들이 소홀히 할 수 없고 사회와 담을 쌓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사회참여의 문제, 핵무기의 위협, 환경문제, 남북통일의 문제, 인권문제 노동과 실업의 문제, 노사문제, 빈부의 문제, 가정과 이혼문제, 성적(性的)인 문제, 낙태문제, 등등 어느것 하나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사회의 갖가지 병리현상을 보고 뒷짐을 지고 있는 개혁교회 성도들이 되어서도 안되고 사회문제에 관한 세속주의 신학자들에게나 혁명적 사회운동가들에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전영역에 미친다는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자라면 더 이상 사회문제가 자유주의자들의 독무대가 되도록 불구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참여에 대한 개혁교회의 입장

우선, 이 논제에 대해서는 존 스타트(John Stott)의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우선 스타트는 사회참여는 본래 복음주의적 유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¹⁾ 물론 필자는 그것이 단순히 복음주의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적 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복음주의란 말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나 이단을 제외한 모든 프로테스탄트를 총칭하는 말이며, 복음주의 안에서는 칼빈주의 사상체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대주의나 근본주의는 복음적인 프로테스탄트이지만 칼빈주의가 보는 것 같은 성경관과 세계관과 사회관을 갖지 못하고 있다. 존 스타트는 사회참여에 대한 것이 18세기의 유럽과 미국에서 있었음을 들고 두 대륙을 혼

11) John R.W. Stott,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역(CLC. 1985) p. 15.

들어 놓은 복음주의 신앙부흥운동(The Evangelical Revival)이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게 했다는 관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¹²⁾ 스타트가 영국사람으로서 복음주의 운동과 사회개혁의 모델을 웨슬레이에 찾은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다. 하여간 그의 주장은 복음주의 신앙부흥운동이 “영국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다른 어떤 운동보다 일반대중의 도덕성을 더욱 많이 변화시켜 놓았다... 한 국가의 정신을 회복시켜준 사람이었다”고 하였다.¹³⁾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복음주의자들도 복음전파와 사회활동에 똑같은 열정을 쏟았음을 강조했다.¹⁴⁾

스타트는 주장하기를 지난 세기의 미국에서도 똑같은 예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사회참여는 복음주의적 종교의 지식이며 복음주의의 생동이었다.”고 했다.¹⁵⁾ 그 좋은 예로서 한 때 법조인이었다가 복음전도자가 되어서 큰 부흥가가 되었던 찰스피니(Charles G. Finny)를 들었다. 피니는 “신앙부흥운동” 뿐 아니라 “개혁에 관심을 가졌음”을 강조했다. 노예제도의 반대운동도 결국은 피니의 복음운동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스타트의 입장을 살펴 봤으나 실제로 그보다는 복음운동과 사회개혁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에게 찾아야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로 논하기로 하자.

본래 사회개혁의 문제는 자유주의자의 것이 아니고 복음주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적 동기 때문에 대 반전이 되었음을 스타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¹⁶⁾ 즉 스타트는 이렇게 반전된 원인

12) *Ibid.* 스타트는 그 설례로서 John Wesley를 들고 있다. 특별히 J. Wesley Bready의 유명한 저서인 “복음주의 신앙 부흥운동과 사회개혁”(The Evangelical Revival and Social Reformed)이란 부제가 붙은 「웨슬레이 이전과 이후 영국」(England Before and After Wesley)에 기록되었음을 강조했다.

13) *Ibid.* p. 17. J. Wesley Bready의 p.327. 316에서 재인용

14) *Ibid.* 예컨대 Grandville Sharp, Thomas Clarkson, James Stephen, Zachary Macaulay, Charles Grand, John Shore, Thomas Babington, Henry Thornton William Wilberforce, A.A. Cooper 등이 이룩한 혁혁한 공적을 예로 들었다.

15) *Ibid.* p. 19.

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는 19세기 유럽과 미국을 휩쓸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이 있다고 본다. 복음주의 쪽 사람들은 초조하고 다급한 나머지, 역사적 성경적 기독교를 옹호하는데만 몰두했다. 특히 이 기간에(1910-1915) 「근본되는 것들」(The Fundamentals)이란 제목이 붙은 12권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자들로부터 “근본주의”(Fundamentalism)라고 불리게 되었다.¹⁶⁾ 교리를 바로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 사회문제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잃어갔다는 것이다.

둘째는 당시의 복음주의자들은 이른바 사회복음(Social gospel)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그때 사회복음주의 대변자는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였다. 그는 몇권의 저서에서 복음주의자들에게 강한 반발을 살만한 발언들을 서슴치 않았다. 우선 그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단순한 형태의 공산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를 공언하고 나섰다.¹⁷⁾ 또 그는 기독교의 근본목적은 모든 인간관계를 쇄신함으로써 인류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⁸⁾ 이런 말은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강한 도전을 받았고 사회복음을 정리하고 사회복음 자체가 용공적인 것으로 몰아세워 자유진영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러나 라우센부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세번째 저서인 「사회복음 신학」(A Theology for the Social Gospel, 1917)에서 본색을 더 드러 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질서의 기독교적 변형이다.”라고 주장했다.¹⁹⁾ 라우센부쉬의 발언은 성경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화한 사회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

는 사람들의 생활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이다.²⁰⁾ 그런데 라우센부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화 했을 때, 거기 대한 반발로 복음주의자들이 전도와 개별적인 박애정신에 전념하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피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양상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제1차 세계대전후에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죄악을 보면서 널리 퍼지게 된 환멸과 염세주의 때문이라고 본다.²¹⁾ 또 두차례 전쟁의 와중에도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인 하나님의 일반은총과 섭리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복음주의 진영에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역사적 개혁주의 기독교는 빛을 잃고 말았다고 주장한다.²²⁾

넷째는 다비(Darby)와 스코필드(Scorfield)가 중심한 전천년설의 확장으로 보았다.²³⁾ 앞서 말한 몇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약 한 세기 동안 미국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했고 그것은 전 세계 모든 복음주의 교회에 영향을 끼쳤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대로 최근 수십년 동안 과거에 복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사회문제에 대해서 다시 눈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본래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관심을 다시 찾으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데이비드 모베르그의 말처럼 1960년대의 복음주의자들의 대반전의 반전(Reversing the Great Reversal)이 시작되었다.²⁴⁾ 처음에는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지의 초대편집장이요 윤리학자였던 칼 헨리(carl F. Henry)가 근본주의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를 등한히 했음을 지적했다. 그후 1966년 이른바 휘튼선언(Wheaton Declar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왔다. 즉

16) *Ibid.* p. 21 Timothy L. Smith나 David O. Moberg는 금세기 초의 이런 현상들을 대반전(The Great Reversal)이라고 불렀다.

17) 우선 책의 서문은 R.A. Torrey가 썼고 각 Chapter 별로 당대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대거 포진하여서 주로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고등비평주의(Higher Criticism)를 정면 대결하고 성경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감되어 졌음을 옹호하였다. 이 책에서 많은 논문을 쓴 사람들은 역시 James Orr와 B.B. Warfield 등이었다.

18) Walter Rauschenbusch, *Christianity and The Social Crisis*(London, 1907). pp. 391-400.

19) *Ibid.* p. 357.

20) Walter Rauschenbusch, *A Theology for Social Gospel*(N.Y. 1917) p.145.

21) Stott, *op. cit.* p. 23

22) *Ibid.* p. 23.

23) *Ibid.*

24) *Ibid.* p. 24.

25) *Ibid.* p. 25.

“모든 피조물을 향한 복음선포의 우선권과 복음주의적 사회활동을 수반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를 지적했다. 한편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 국제 회의(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에서 이른바 로잔 협약(Lausanne Covenant)을 발표하였다.²⁶⁾ 그 중에 제5장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권념에 참여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별 또는 연령의 구별없이 본연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서로 존경하고 섬김을 받아야하며 착취를 당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여 온 것과 때때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상반된다고 잘못 생각해 온 것을 회개한다.

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최근에 이르러 복음주의 진영에서 늦게나마 사회적 관심과 사회참여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 물론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봉사나 하는 말에는 정치적 참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이라는 단어사용 자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스타트는 말하기를 정치란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를 구별했다.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란 도시(Polis)의 생활과 시민(Polites)의 책임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그것은 인간사회에서의 삶 전체와 관련된다. 이 때 정치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의 의미는 다스리는 과학이다. 그것은 그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내도록 하기 위한 특정 정책 채택과 개발에 관여한다는 의미이다.²⁷⁾ 이런 명백

26) 로잔 언약의 대부분은 존 스타트(John R. W. Stott)와 그가 속한 위원회가 작성하였고 150여개 국가를 대표한 3천 7백명이 승인하였다.

한 구분을 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의미의 정치에 분명히 관여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정치가도 아니었을 뿐더러 정치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주장을 내세운일도 없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의 사역은 모두가 정치적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세상에 왔으며 그의 제자들도 같은 일을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것이다.²⁸⁾ 그러나 존 스타트의 이런 기술은 다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회참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세상의 한 가운데 오셨고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였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주의자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마 4:23, 9:35 행 10:38 등에 제시한대로 예수께서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등에서 찾는다. 스타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결국 두 가지밖에 없는 데, 하나는 도피고 하나는 참여라는 것이다. 도피일 경우는 그것에서 손을 씻고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반대로 참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느끼면서 세상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 손을 더럽히고 상처입는 고통을 겪으며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위에서 주로 존 스타트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았다. 결국 사회에 대한 관심은 본래 복음주의자들의 것이었음도 불구하고 1900년대 초 미국의 신학적 논쟁에 휘말려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자유주의자들에게 내어 맡겨버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다시 찾아서 진정으로 복음전파와 사회개혁은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27) *Ibid.* p.27.

28) *Ibid.*

4. 사회개혁을 위한 칼빈주의의 입장과 대안

칼빈주의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칼빈주의 원리에서 세운 나라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이 보지 않는 나라는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수준이 매우 급속히 발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간의 존엄성, 결혼의 신성함, 법과 질서의 신성한 의무, 이웃을 사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보상, 개인이나 사회에 높은 도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등은 모름지기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였다.

그런데 사회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른바 복음주의자들의 태도와 칼빈주의자들의 태도는 다르다. 물론 칼빈주의는 복음주의다. 그러나 복음주의가 칼빈주의 사상 체계와 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주의라고 할 때 대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붙들고 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스도안에서의 구속, 성경의 영감,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을 믿는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예수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 이 정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복음적이다. 이런 신앙은 자유주의자나 이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파에서 다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어떤 교파이던간에 위의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들이다. 그러나 그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전영역에 미친다는 하나님 중심사상 또는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자연히 복음주의자들은 사회나 정치나 문화에 대한 태도에서 칼빈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복음주의자들의 사회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원론적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주

의적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이다.³⁰⁾ 즉 이원론적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은 육신, 현세, 물질을 멸시하고 영혼, 정신, 내세를 존중하는데 이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들은 내세의 영혼 구원을 얻는 것만이 중요하고 현세에 관계되는 일들은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그들의 종말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신앙에 근거한다. 즉 주 예수의 강림이 불원하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발상이다. 이들의 전도라는 것은 오직 말로서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개인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의 태도인데, 이들은 극단적 이원론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육을 아울러 창조했고 내세와 현세를 함께 통치하시기 때문에, 영혼의 관심뿐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다. 이들의 입장은 복음전파를 통해서 온 사회가 변화되지만 하면 사회는 저절로 개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은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으로 본다. 그러므로 사회의 문제는 바로 개인의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개인을 변화시키면 되고 그 방법은 오직 복음전도 뿐으로 본다. 전도를 통해서 개인의 심령이 변화되면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는 자동적으로 변화된다는 생각이다.³¹⁾ 그래서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되어버린다. 양낙홍에 의하면 개인적 복음주의자들의 사회나 정치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특별히 재 세례파 신학의 전통을 물려 받았다고 주장했다.³²⁾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 하였다. 즉

한국의 보수 장로교회는 비록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그것을 자

30) *Ibid.* pp. 88-93.

31) *Ibid.* p.91.

32) *Ibid.* p.92. 양낙홍은 특히 John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Eerd. ca. 1972)의 7장에서 9장을 예로 들면서 재 세례파의 신학적 입장이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음을 설명했다.

29) 양낙홍은 복음주의적이라는 용어는 경건주의적 부흥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은(그리하여 개인의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는) 초교파적 복미개신교 운동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양낙홍, 개혁주의 사회윤리와 한국 장로교회(개혁주의 신학협회, 1994) p. 86.

랑하나 실제로는 재 세레파의 정치관의 영향을 깊이 받은듯하다. 정치와 권력에 대한 이런 부정적 태도는 수백년동안 권력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정치에 대한 한국 복음주의자들의 거부감을 가일층 심화 시켰다.

고 하였다.³³⁾ 위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 가지는 사회관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의 사회관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1) 칼빈주의의 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

칼빈주의자들은 앞서 말한 개인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즉 개인 구원이 사회개혁의 중심이란 것을 확신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복음전도가 사회개혁을 유도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앞의 말한 개인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하여 몇가지 결함이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는 낙관주의 문제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 믿는 사람이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빛과 소금 노릇을 못함으로써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옳으나, 실제로는 세상의 변화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개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복음화가 사회개혁을 자동으로 이룬다는 것은 낙관주의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며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칼빈주의자들은 개인이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만큼이나 사회구조도 개인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불의한 구조는 개인으로 하여금 불의하게 행동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쁜 사회 환경은 가장 선한 의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 반대로 좋은 환경은 나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저지 할 수 있다고 본다.³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이지만, 개인 사

33) *Ibid.* p.93.

34) *Ibid.* p. 98. 칼빈주의 철학자 Herman Dooyeweerd는 이른바 구조의 유형

회를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 예컨대 개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사회의 환경은 결정적이다. 칼빈주의자들은 개인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회의 기본단위가 개인으로만 본다면 인간집단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을 그의 사회적 본성의 견지에서 보면서 사회의 기본적 단위는 개인 그 자체라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 영역들로 여긴다.

셋째는 칼빈주의자들은 이원론(Dualism)이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를 제한시킨다고 생각한다. 이원론적 복음주의자들의 이분법적 사고는 기독교가 아니라 헬라의 플라톤주의 유산으로 본다. 칼빈주의자들의 성경적 인간관은 「공동체 속에 있는 영육」으로 본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영육을 포함한 전인이라는 사실이다.³⁵⁾

칼빈주의자의 입장은, 하나님은 하늘과 대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섭리와 통치는 전포괄적이며 우주적이다. 그의 주권은 이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주일날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2) 칼빈주의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

칼빈주의는 사회의 모든 유기적 단체가 각기 자체의 분야에서 주권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가정이나 인간의 모든 공동

들을 설명하면서 「사회의 구조」 「가정의 구조」 「결혼의 구조」 「국가의 구조」가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사회 구조에 있어서 그 한가지는 공동체와 다른 한가지는 상호관계이다. 공동체란 어느정도 영구적인 성격을 띠며 그 구성원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국가, 교회, 가정, 노동조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상호관계란 개인 혹은 공동체들이 서로의 협동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로서 국가, 가정, 교회, 조직체 상호간의 관계 등이 여기 포함된다. Dooyeweerd가 사용한 공동체란 화란어로 Gemeenschap이고 상호관계 곧 사회는 Maatschappij이다. L. Kalsbeek,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Herman Dooyeweerd's Thought.* section 27-30을 보라.

35) John R. W. Stott, *Involvement: Being a Responsible Christian in a Non-Christian Society*(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1984). p. 41.

체와 기관들에 하나님이 주신 자체내의 고유한 원리와 임무를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들에게 각기 분야에 대한 자주권을 주셨다. 사회에 대한 모든 유기적 단체가 각기 자체의 분야에서는 자주권을 가진다는 말은 칼빈주의가 애호하는 표어이다.³⁶⁾ 칼빈주의자는 국가나 교회나 기타 사회의 모든 합법적인 세포 단체들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저들이 자기 몫에 태인 자주의 권리들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는 사회 모든 분야에 주권을 인정한다. 사회는 서로 상관 없는 개인들의 조잡한 집합체가 아니고,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 곧, 커다란 사회적 유기물로 본다.³⁷⁾ 이 사회적 유기체는 인간의 복잡한 생활에서 생긴 독특하면서도 서로 관계되는 많은 분야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각 분야를 각 영역은 감당해야 할 임무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다. 그래서 가정, 과학, 예술, 기술, 상업, 농업, 교회 같은 것들의 부분들과 기타 모든 분야들이, 모두가 일체를 이루는 사회에 속한다.³⁸⁾

또한 사회에 있는 모든 세포 단체들의 권위도 개인의 권위와 꼭 마찬가지로이다. 한 가정에 있어서 모든 일의 권위는 국가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의 머리인 부모에게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또 학교에서 과학적 결론을 내리는 것도 국가가 명령할 권리가 없다.

칼빈주의는 정부와 사회의 각 부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정부의 주권과 사회 각 부분의 주권은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본다.³⁹⁾ 정부의 임무는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정부는 죄악 세상에서, 공의에 따라서 악을 행한 자를 벌하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포상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⁴⁰⁾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회 모든 분야에 속하는 문화개발의 임무를 유감없

36) H. Henry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6th edit. Revised Paul A. Maaskall(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p. 125 "The Sovereignty of the organic groups in society each in its own Sphere"

37) *Ibid.* p.126.

38) *Ibid.*

39) *Ibid.* p.129.

40) *Ibid.* p.130. *It must administer justice in a sinful world for punishment of evil doers and for the praise of them who do well.*

이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있다. 소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분야의 기관들로 하여금 그 천품적 임무(God-given task)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을 국가로서 방비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문화개발상 모든 과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여러 가지 조건과 관계를 국가로서 추진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상호간에 분쟁을 막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약한 단체에 대하여 강한 세력이 권력을 남용치 못하도록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 동시에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정부는 백성들에게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재정적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⁴¹⁾

이상에서 말한 대로 칼빈주의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사회의 공동체가 서로 독립하면서도 유기적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유와 만사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3) 칼빈주의의 사회에 대한 관심의 실예(칼빈과 카이퍼)

우리는 위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칼빈주의는 복음전도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에 대해서 독특함을 설명한 바 있다. 또 사회개혁과 사회사업도 개혁교회의 것이었으나 다만 1900년 이후에 대반전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인듯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칼빈주의 신앙노선의 두 거장인 칼빈이나 카이퍼의 경우 정치와 문화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칼빈과 카이퍼의 관심을 남달랐다.

예컨대 칼빈은 가난에 대한 근본이해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e Dei)으로 지음 받았다는 확신에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끼리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가르쳐준다. 칼빈은 말하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한 인간이 어떤 잔인하고 사악한 인간에 의해서 곤경을 당하고 있을 때 당신 자신께서 상처입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다.⁴²⁾ 또 칼빈은 말

41) *Ibid.* p.131.

42) John Calvin, *Commentary on Deuteronomy*(Grand Rapids : Eerd. co. 1956). 4 : 39-43.

하기를 “상속받았는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었는지 부를 소유한 자는 그 얻은 것이 자신의 무절제나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궁핍을 구제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다.⁴³⁾ 이런 칭지 기적을 수행하지 않는 자는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사탄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다.⁴⁴⁾ 칼빈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눈 앞에 구제를 바라는 이웃이 있음을 보고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앞에 중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했다.⁴⁵⁾ 어디 그뿐인가 칼빈은 설교중에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부자들을 호통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부자들에게 칼빈은 ‘살인자’ ‘야만인’ ‘가난한 자를 물고 삼키는 자’ ‘그들의 피를 빼는 자들’ 이라고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⁴⁶⁾ 위에서 살핀대로 칼빈의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그의 신학의 최상으로 고백하면서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소화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은 그의 제네바의 통치뿐 아니라 그의 성경주석과 그의 설교에서 많이 발견된다.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제2의 칼빈으로서 삶의 전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카이퍼는 그의 명저 기독교와 계급투쟁에서 그는 예언자적 진술을 했다. 사회적 문제는 19세기 말엽의 심각한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음을 주장하였다. 빈곤의 문제는 정신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이며 하층계급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개혁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카이퍼는 말하기를 “부지런하게 일하고도 자신과 가족을 위한 빵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부한 것을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그 풍요를 너무나 불공평하게 분배해서 어떤 이는 빵이 넘쳐나고 어떤 이는

43)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Eerd. co. 1956) p.114.

44)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Mark(Eerd. Co. 1956) 4 : 8-11.

45) John Calvin, Commentary on Deuteronomy 22 : 1-4.

46) John Calvin, Sermon XLIV on the Harmony of the gospels. Matt 3 : 9-10

주린배를 잡고 움막으로, 때로는 움막도 없이 지내는 것은 용서될 수도 용서되어서도 안된다”고 역설했다.⁴⁷⁾ 카이퍼는 칼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하층계급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선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회자체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 분석하고 그 모순된 구조를 바꿈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았다.⁴⁸⁾ 카이퍼는 당시에 만연했던 가난의 원인을 불란서 혁명과 계몽주의로부터 일어난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자유방임경제체제에 그 원인을 돌렸다. 카이퍼는 주장하되 불란서 혁명은 사회적 욕구에서 왔는데, 첫째는 돈을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정신과 둘째는 돈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았다. 지난 세기에 카이퍼의 예리한 분석과 비판은 오늘의 세계와 한국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가난의 문제는 단순한 동정과 구제로 끝나서는 안되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회 개혁 프로그램과 하나님 중심한 삶의 체계를 세워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옛날의 사상 체계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5. 사회 개혁에 대한 칼빈주의의 대안과 결론

우리는 위에서 칼빈주의가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며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한국은 이 복음주의적 교회 또는 개혁교회가 그동안 등한히 했던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자각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사회문제에 관한 자유주의자들의 독무대가 되었던 것을 반성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믿고,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과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믿는 우리로서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과 소명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 우리가

47) Abraham Kuyper, Christianity and Class struggle(Grand Rapids : piet Heim, 1950). pp.48-49.

48) Nicholas Wa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nbrace, Kuyper Lectures of Free University of Amsterdam, (Kampen; kok. 1981). Chop.4.

칼빈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사회가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사회가 자동으로 개혁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교회는 이땅의 인구의 사분의 일을 차지했으나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사회 부조리를 개혁했다는 말은 못들어 보았다. 도리어 지난번 정부주도의 개혁에서 비리에 관련된자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 할말이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원론적 사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개인주의적인 복음주의만으로서 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은 복음을 믿고 중생의 체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있고 욕심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회개혁을 한다해도 한계가 있고 또다시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사회가 병든 것을 본다. 사회적 병리현상은 물론 인간의 최악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병리현상 때문에 인간은 더욱 타락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전도와 아울러서 사회개혁을 위한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책임지는 교회(Responsible Church)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대안으로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지역 교회로서, 교단으로서 사회개혁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는 사회문제와 사회개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만약 기도없이 정치적 행동만을 부르짖는 사람은 단지 인도주의적 사회운동가로 치부되기 쉽다.⁴⁹⁾ 반대로 기도를 사회적 책임으로 부터 도피를 위한 구실로 오용되어서는 안된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선이 있다. 자선은 물론 개인적 사랑의 행위일 것이다. 자선은 빈민, 병자, 노인, 장애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선이나 박애주의가 사회변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⁵⁰⁾ 그러면서도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여 바른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각종 모임에 바른 신앙을 가진 자로서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크리스찬들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조직

49) 양낙홍, Op. cit. p. 114.

50) *Ibid.*

원으로서 불의한 방법을 이기고 선한 방법으로 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공직에 봉사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공직에서 봉사할 때 칼빈주의자들은 민중의 음성(Vox Populi)보다 하나님의 음성(Vox Dei)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일 뿐 아니라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칼빈주의자들은 강단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포할 수 있다. 물론 강단은 정치적인 토론장이나 정치적 주장을 펴서는 안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완전히 별개가 될 수 없으므로 사회 구조를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⁵¹⁾

여기서 칼빈주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R.B.카이퍼(Kuiper) 박사의 입장을 몇가지로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려고 한다.⁵²⁾ 강단에서 설교할 때 자유주의적 사회복음주의는 안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음주의는 분명히 진화론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사회복음주의의 결함은 그것이 사회적인데 있다기 보다는 자유주의적인데 있다.⁵³⁾ 반대로 세대주의적인 개인적 복음도 합당치 않다. 성경에 대한 세대주의의 견해는 위대한 기독교 신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역사적 정통주의가 아니다.⁵⁴⁾ 근본주의자들로 하여금 강단에서 사회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현재 교회와 다가올 왕국을 세대주의적으로 구별하기 때문이다.⁵⁵⁾

또 하나 팔트주의의 정적 복음(The Quietistic Gospel of Barthianism)으로도 사회개혁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변증법적 신학이 갖고 있는 비합리적이고 역설적 성격과 이원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⁵⁶⁾ 끝으로 칼빈주의의 포괄적 복음(the Comprehensive Gospel

51) *Ibid.*

52) R.B. Kuiper, Christian pulpit and Social Problem,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에 발표된 것인데 이병각 목사의 저서, 「사회 변혁적 설교」의 부록에 실려있다.

53) *Ibid.* p.152.

54) *Ibid.* p.157.

55) *Ibid.* p.159.

of Calvinism)만이 우리시대의 사회의 개혁을 위한 진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칼빈주의 설교자는 개인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을 갖는다.⁵⁶⁾ 왜 칼빈주의 설교는 개인구원의 메시지를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이 갖는 사회문제에 대한 구원을 계속 선포할 수 있는지는 이미 암시 되어있다. 즉 칼빈주의 설교자가 사회적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즉 세례요한 예수님 그리고 사도바울의 설교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칼빈주의자는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발견한다. 그 둘은 서로 섞여있다. 십자가와 유리된 사회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칼빈주의와 사회문제는 이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매주일 강단의 문제이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사회에 대한 지금 까지 자유주의, 세대주의, 이원론적 복음주의, 개인주의적 복음주의가 갖고 있던 문제를 깨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므로 사회의 개혁은 자유주의자의 것이 아니고 우리 칼빈주의자들의 몫이다. (*)

56) *Ibid.* p.170.

57) *Ibid.* p.171.

칼빈의 문헌에 대한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黃 晟 喆

<실천신학>

목	차
I. 서론적 설명	5. 교회 작제에 관한 법령
II. 교육적인 관점에서 칼빈의 문헌 고찰	6. 제네바 요리 문답서
1. 기독교 강요	7. 제네바 대학에 관한 규정
2. 신앙고백서	8. 목회서신주석
3. 교회조직에 관한 규정	9. 설교선집
4. 신앙교육서	III. 결 론

I. 서론적 설명

필립 볼머(Philip Vollmer)는 칼빈의 생애와 활동에 관한 책을 저술하면서 그 제목을 존 칼빈 : 신학자, 설교자, 교육자, 정치가¹⁾라고 붙였다.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실제로 칼빈의 활동은 대단히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행하여졌다. 그의 폭넓은 활동가운데에서 특히 기독교 강요²⁾의 저자로서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에 있어서 탁월한

1) Philip Vollmer, *John Calvin : Theologian, Preacher, Educator, Statesman* (Philadelphia : The Heidelberg Press, 1909).